

碩 士 學 位 論 文

『竹取物語』에 나타난 시대상

指導教授 金 成 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崔 眞 豪

1999年 8月

『竹取物語』에 나타난 시대상

指導教授 金 成 俸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년 6월 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崔 眞 豪

崔眞豪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9년 7월 일

審査委員長 _____ ①인

審査委員 _____ ①인

審査委員 _____ ①인

<국문초록>

『竹取物語』에 나타난 시대상

崔 眞 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成 俸

현재 편리한 활자본으로 읽을 수 있는 「竹取物語」는 “竹取の翁物語” 또는 “かぐや姫の物語”라고 불리어져 왔으며, 「源氏物語」에서 “物語の出ではじめの祖”라고 말하고 있듯이 일본 最古의 物語라고 볼 수 있다.

“物語”란 협의의 현실을 초월하여 그것과는 다른 세계를 묘사하는 픽션으로써 창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협의의 현실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허구 속에서 도출시켜 내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비현실성도 당연히 나타난다. 그러나 “物語”의 현실성도 “物語” 장르 성립에 필수 요건이다.

본 논고에서는 「竹取物語」 작품 속의 かぐや姫의 탄생과 성장과정, 5인의 귀공자들의 구애, 天皇의 구혼, かぐや姫의 승천 등의 묘사와 전개과정을 통해 그 당시의 시대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竹取物語」 작품이 실현 불가능성과 현실 세계를 초월한 이상한 힘 또는 不死의 약 등 여러 가지 비현실성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작품의 성립 시기인 平安시대의 시대상을 꽤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본 논고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본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 론	1
II. 사회상	4
1. 統制力이 약한 社會	4
2. 閉鎖된 社會	11
3. 庶民生活	14
4. 成人式	15
5. 婚姻觀	16
6. 對唐貿易	27
III. 천 황상	30
IV. 자연상	35
1. 대나무(竹)	35
2. 달(月)	37
V. 결 론	49
參考文獻	51
Abstract	53



I. 서론

「竹取物語」는 「源氏物語」에서 “物語の出ではじめの祖”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본 最古의 物語¹⁾이다. 현재 편리한 활자본으로 읽을 수 있는 「竹取物語」는 옛날에는 “竹取の翁物語” 또는 “がぐや姫の物語”라고 불리어져 왔으며, 작자²⁾ 및 성립시기³⁾가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說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문학 영역의 성과에 따라서 「竹取物語」의 성립시기를 平安시대 초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하며, 이 시기를 전제로 본 논고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의 소재론에 대해서는 일본 문학사상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은 드물다.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 說이 있으며, 그 대표되는 사람으로는 津田(1916), 和辻(1922) 그 후 柳田國男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柳田가 1934년 에 발표한 「竹取翁考」에서 「竹取物語」는 한 사람의 작가에 의한 창작이 아니라 세상에 유포되고 있던 설화를 모아 각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求婚難題部分은 「竹取物語」 작가의 “變化部分自由區域”이라는 柳田의 說이 거의 40년 동안 일본문학에 깊게 침투해⁴⁾ 있다고 한다.

1) 작자의 견문 또는 상상을 기초로 인물·사건에 대해 서술한 산문의 문학 작품. 俠義로는 소설을 가리킨다. 廣義로는 平安時代부터 室町時代까지의 것을 말한다.

2) 作者 : 여러 說이 있으나 具體的인 人名은 不明이다. 그러나 當時 知識階級에 屬하는 男性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當時 男性은 漢文을 많이 使用했는데 그 漢文訓讀式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相原林司(1984), 「竹取物語」, 旺文社, p.11.}

3) 成立時期:①809年(大同4)~823年(弘仁14)라는 說

②864年(貞觀6)~905年(延喜5) ”

③900年쯤, 900년이후라는 說

그리고 1972년에는 “竹取物語は翻案である”라는 표제로 신문에 발표된⁵⁾ 論考에서 「竹取物語」가 중국대륙의 설화인 「斑竹姑娘」⁶⁾과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일본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⁷⁾.

일본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說⁸⁾이 있지만 필자는 伊藤清司가 주장하는 이 物語가 태어난 곳은 일본이 아니고 먼 이국의 것이며 주인공 “かぐや姫” 역시 異境의 사람이라는 것⁹⁾에 공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작품의 소재를 보더라도 일본에서 중국대륙으로 건너갔다는 추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옛날 渡來僧이나 중국에 간 유학생을 통해 구전되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작품이 중국의 「斑竹姑娘」의 翻案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은 필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필자는 이 작품이 중국의 아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 物語가 일본고전문학으로 어디까지나 平安초기에 생겨난 새로운 문학 장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본 연구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 새로운 문학 장르라는 것은 작품 속에 비록 비현실적인 부분도 나오지만 새 장르인 物語의 현실성도 物語 장르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이며, 그 속에는 당시 사회나 세태를 묘사한다는 것을 확신한다¹⁰⁾는 鈴木一雄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일본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은 읽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이 “物語”가 쓰여진 당시(平安初期) 세계를 이 작품을 통해 엿보고자 한다.

4) 田中元(1982), 「竹取・伊勢物語の世界」, 吉川弘文館, p.150.

5) 篠田浩一郎(1981), 「竹取と浮雲」, 集英社, p.11.

6) 日本語로 고치면 「竹取物語」이다.

7) 伊藤清司(1984), 「かぐや姫の誕生」, 講談社 現代新書, p.170.

8) 否定的인 견해 田中元(1982), 前掲書, p.150.

野口元大(1984), 「竹取物語」, 新潮日本古典集成, p.150.

9) 伊藤清司(1984), 上掲書, p.5.

10) 片桐洋一(1976), 日本古典文学全集8 「竹取・伊勢・大和物語」, 小学館 p.11.

「竹取物語」가 쓰여진 당시 세계란 天皇을 정점으로 하는 귀족사회였다. 그리고 이 物語의 작자도 그 귀족사회의 일원¹¹⁾이고, 또 문학상의 新産物의 작품도 그 성질은 역시 귀족적이다¹²⁾라는 것과 같이 이 작품 역시 귀족적이다라는 가정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작품 속 등장인물이 당시 최고 귀족들만 묘사되었다는 것 등으로 보아 당시 사회는 민중과 거리가 먼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귀족사회 속에서 탄생한 작품인 「竹取物語」를 통해 당시 세계의 시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田中元(1982), 前掲書, p.174.

12) 津田左右吉(1977), 「文學に現はれたる國民思想」第1卷, 岩波書店, p.326.

II. 사회상

1. 統制력이 약한 社會

「竹取物語」의 성립시기인 平安時代는 통제력이 약한 사회라는 것을 津田는 그의 저서에서

平安朝人が旅行を憂きものにし、地方を恐ろしいところと思ってるたのは、政治の腐敗から生ずる盜賊の横行なども……(下略)¹³⁾

(平安朝의 사람들이 여행을 꺼리고, 지방을 두렵게 생각한 것은 정치의 부패에서 생긴 도적의 횡행 등도……)



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京都나 지방에 도적이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女賊에 관해서는 清凉殿에 “清凉殿에 女賊이 침입해서 天皇愕然 했다”는 기록¹⁴⁾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平安初期時代는 우리 나라 통일신라 시대의 下代에 속하는데 이때는 신라 국내의 통제력도 이완되고 동란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당시 신라에는 해적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해적 등이 일본 근해까지 접근해서 “日本嵯峨天皇弘仁三年(新羅憲德王 四年 812)에 신라의 해적선 20여 척이 대마도를 규채하였다든지 또 다음 해에 신라인 백십인이 일본 小近島에 상륙하여 土民과 相戰하였다는 것, 그 후 清和天皇 貞觀

13) 津田左右吉(1977), 前掲書, p.400.

14) 田中元(1982), 前掲書, p.87.

十一年(景文王 九年 869)에 신라의 해적이 틈을 타서 일본지방민이 上貢하는 綿을 약탈하였다.”¹⁵⁾와 같이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본의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시대의 영향을 「竹取物語」가 받고 있다는 것을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仏の御石の鉢”에서 “石作の皇子”는 天竺에 돌도 없는 “鉢”를 백리, 천리, 만리를 가더라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かぐや姫”에게는 “石の鉢”를 구하러 간다고 말하고는 3년쯤 지나서 일본국에 있는 엉뚱한 “石の鉢”를 가져오는 묘사 속에

「石作皇子は心のしたくある人にて……」¹⁶⁾

(石作皇子는 타산적인 사람이므로……)

와 같이皇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蓬萊の玉の枝”에서는 “車持の皇子”가 가짜 “蓬萊の玉の枝”를 만들어 가지고 와 “竹取翁”에게 “蓬萊の玉の枝”를 입수한 고생담을 공상과 과장을 섞어가며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車持の皇子”의 철저한 위선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車持の皇子”는 당시 제일의 장인에게 명령해서 “蓬萊の玉の枝”의 모조품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조정에는 온천에 갔다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가를 얻고, “かぐや姫”에게는 “蓬萊の玉の枝”를 구하러 간다고 말하고 부두를 떠난다. 그리고 “車持の皇子”는 3일만에 아무도 모르게 돌아와서는 가짜 “蓬萊の玉の枝”를 만들기 위한 공방을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세공인들을 감독하면서

15) 金載元·李雨壽(1959), 「韓國史」(古代編), 乙酉文化史, p.708.

16) 雨海博洋譯注(1994), 「竹取物語」, 旺文社, p.28.

가짜 “蓬萊の玉の枝”를 만든다. 또한 “車持の皇子”는 진짜 “蓬萊の玉の枝”를 구해 온 것처럼 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부두에 운반해 놓고는 오랫동안 항해에 지쳐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 치밀하고도 계획된 위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車持の皇子”의 위선에 대해 미천한 세공인은,

「皇子の君、千日いやしき工匠等ともろともに同じ所に隠れ居給ひて、かしこき玉の枝作らせ給ひて……17)

(皇子님은, 천일 동안 저희들과 같은 비천한 세공인들과 함께, 칩거하셔서 매우 훌륭한 보석 나뭇가지를 만드시고……)

천여 일동안 고생해 가짜 “蓬萊の玉の枝”를 만들었는데도 “車持の皇子”가 보수를 주지 않자, 이러한 상황을 위 예문처럼 翁에게 편지를 써서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는 당시 미천한 자들도 귀족을 고발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龍の首の珠”의 段에서,

「天の使といはんものは、命を捨てても、おのが君の仰せ事をばかなへんこそ思ふべけれ。」18)

(적어도 주인을 섬기는 자는 설령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자기의 주인의 명령을 완수하려고 생각해야 한다.)

“大納言大伴”가 主君을 섬기는 부하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主君

17)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50.

18) 上掲書, p.68.

이 명령한 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예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大納言大伴”는 부하들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기를 바라지만 그의 부하들은 “龍の首の珠”을 도저히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

賜はせたる物、各々分けつつ取る。あるいはおのが家に籠りぬ、あるいはおのが行かまほしき所へ往ぬ。「親、君と申すとも、かくつきなきことを仰せ給ふこと」と、事ゆかぬもの故、大納言を誇りあいたり。¹⁹⁾

(주신 물건은 각각 나누어 가졌다. 어떤 자는 자기 집에 틀어 박히고, 어떤 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 「주인이라고 해도, 이런 당치도 않은 것을 분부하시다니」라고 하며, 납득을 할 수 없어서 大納言을 비난했다.)

즉, 大納言의 부하들은 大納言이 “龍の首の珠”를 구하기 위해 준 여비(錦布, 絹布, 돈 등)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집에 숨어버리거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버리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主君이라고 할지라도 실현 불가능한 “龍の首の珠”를 구해오라는 부조리한 명령을 내린 大納言을 비방하고 있다.

이처럼, 「竹取物語」에서는 권위나 권력에서 벗어난 자유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大納言은 기다려도 부하들이 오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龍の首の珠”를 얻기 위해 바다에 나간다.

「楫取りの御神聞こしめせ。をどなく、心をさなく龍を殺さむと思ひけり。今より後は、毛の末一筋をだに動かし奉らじ」と、壽詞をはなちて立ち居、泣々

19)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72.

よばひ給ふこと、千度ばかり申し給ふけに…」²⁰⁾

(「뱃머리의 신이지여, 들어주십시오. 무분별하게 용을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용의 털끝하나라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맹세를 하며 서서, 울고 불며 기원하기를 수천 번쯤 거듭 말씀드리니…)

그러나 막상 “龍の首の珠”를 구하러 떠난 大納言는 위 예문과 같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며,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때서야 大納言는 비로소 “龍の首の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이 모두 자기 집에 오지만 꾸짖지 않고,

「汝らよくもて來ずなりぬ。」²¹⁾

(자네들, 가지고 오지 않길 잘했네)

라고 말한다.



…かぐや姫てふ大盜人の奴が、人を殺さんとするなりけり。家のあたりだに今は通らじ、男ども、なありきそ」²²⁾

(…저 かぐや姫라고 하는 나쁜 녀석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저 집 근처에 이제는 왕래하지 않겠노라. 이제 너희들도 근처에는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大納言는 자신에게 실현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かぐや姫에게 위 예문과 같이 심한 욕설을 퍼붓는다.

20)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78.

21) 上掲書, p.84.

22) 上掲書, p.84.

「離れ給ひし本の上は、腹をきりて笑ひ給ふ。」²³⁾

(헤어진 원래의 부인은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셨다.)

한편 전부인은 귀족이 부하들에게 불합리한 것을 시킨 죄로 大納言 자신이 오히려 죽을 고생을 당하고 부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며 위 예문과 같이 웃음을 터트린다. 이는, 자신의 남편이 부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반응을 보임으로써 平安 시대의 귀족들이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 이야기인 “燕の子安具” 段에서는 中納言가 “かぐや姫”가 말한 “燕の子安具”를 구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즉, 中納言는 발판을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가서 손을 제비집에 넣는다. 그리고, “燕の子安具”와 같이 생각되는 것을 잡는 순간 기뻐하지만, “쿵”하고 떨어져 버린다. 中納言가 떨어진 모습은,

「御目は白目にて臥し給へり」²⁴⁾

(눈을 허영게 하고는 옆으로 누워있다.)

위 예문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혼수상태에서 겨우 깨어난 그에게 ‘부하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말에 中納言은

「物はすこし覺ゆれども、腰なん動かれぬ。されど子安具をふと握りもたれ

23)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84.

24) 上掲書, p.96.

ば、うれしくおぼゆる也。」²⁵⁾

(조금 기억은 나지만, 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子安貝를 꼭 쥐고 있으니, 기쁘게 생각되는구나.)

라고 대답한다.

「燕のまり置ける糞を握り給へるなりけり。」²⁶⁾

(제비가 싸놓은 놓은 똥을 손에 쥐고 있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中納言이 손을 펴보자 제비 똥을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위 예문은 사랑에 몸부림치는 그 당시의 귀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귀족의 우스꽝스럽고 골계적인 묘사를 통해 「竹取物語」의 작가는 귀족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귀족에 대한 연민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竹取物語」의 작품 속에서는 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平安朝의 사회에서, 天皇을 제외한 당시 최고의 귀족들을 비판하거나 하여 귀족의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 平安시대는 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기는 했지만 그 시대와 문화의 정점을 이루는 상류 귀족 사회의 권위나 통제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구속력이 약해져 있었으며 또 부하들 역시 중앙 귀족 사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자기의 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귀족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竹取物語」에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고발

25)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98.

26) 上掲書, p.98.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平安 시대가 귀족들의 권력·권위에 의한 통제력이 약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당시 세계가 통제력이 약한 사회라는 이유는 다음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은 平安朝의 “物語”란 새로운 장르의 문학인데, 새로운 문학장르란 그 시대사회의 필요, 요구 혹은 기대나 지지가 집중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²⁷⁾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작품의 내용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귀족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비판하고 있는 「竹取物語」가 그 당시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작품이 그 사회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이 어떠한 독자를 예측하고 또 어느 정도의 독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의 경위에서 보면 이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 상당한 범위의 독자에게 퍼졌다²⁸⁾는 것을 볼 때 부조리한 사회나 귀족을 비판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통제력이 약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竹取物語」가 탄생했을 당시 통제력이 약한 사회가 된 구체적인 이유는 平安朝부터 정치의 세계와 문화의 세계가 각자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점과 율령체제의 토지공유지가 붕괴되면서 귀족들의 신분계급 파괴, 그리고 天황의 神的 존재가 사라지고 인간으로 나타나게 된 점에 있다고 보고 싶다.

2. 閉鎖된 社會

平安初期 世界에 대해,

27) 片桐洋一(1976), 前掲書, p.11.

28) 田中元(1982), 前掲書, p.179.

特に狹隘で優美で且つ小規模である平安京の山河を世界として，それより外には出ることを好まなかった當時の都人士は，遊覽を興あるものとした奈良朝人とは遠って，平素見なれてゐる小さい美しい自然界と少しでも様子の變つた光景に接すると，殆どその前に戰慄するばかりであつた.²⁹⁾

(특히 자그맣고 아름다운 계다가 소규모인 헤이안성(교토의 옛이름)의山河를 세계로 하여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당시의 교토 귀족들은, 유람을 취미로 삼았던 나라 귀족들과는 거리가 멀어 평소 낮익은 작고 아름다운 자연계와 조금이라도 다른 광경을 접하게 되면 대부분은 그 앞에서 전율할 따름이었다.)

津田씨가 위 예문과 같이 작고 좁으며 폐쇄된 공간으로 보고 있듯이 平安朝 귀족의 세계는 좁고 소규모인 平安京에 한정되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道程でいへば都に近い宇治，石山，やゝ遠くて泊瀬，それより遠くとも須磨明石から住吉の浦かけてのあたりを限りとし、…」³⁰⁾

(거리(道程)를 말한다면, 수도에 가까운 宇治, 石山, 조금 먼 泊瀬, 그 보다 먼 須磨明石에서부터 住吉 포구에 걸친 부분을 한계로 하여...)

그리고 平安朝는 위 예문에서처럼 京都 以外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平安朝 문학의 환경을 이루는 수도의 그 공간적 한계란 平安朝 이전의 수도(飛鳥, 藤原, 平城) 등과 비교해 보아도 알수 있듯이 지형적으로 좁게 폐쇄된 사회인 것이다.

29) 津田左右吉(1977), 前掲書, p.394.

30) 上掲書, pp.399~400.

이와 같이 지형적으로 좁게 폐쇄된 사회인 平安시대는 더구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에 도적과 해적이 날뛰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사상의 주담당자인 귀족들이 지방에 나가는 것을 몹시 두렵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귀족들의 생활은 京都(みやこ)에 고립하여 안주하는 삶 속에서 먼 이국의 국토문물을 동경하는 것과 같은 관념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竹取物語」에서 살펴보면, 五人 貴公子들의 難題求婚說話段에서 실현 불가능한 난제물의 본질은 들쭉치고 소재지가 天竺, 蓬萊, 唐土 등 어느 것이나 당시 일본인에게는 먼 이국의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현실 세계가 폐쇄되어있기 때문에 먼 이국의 국토문물에의 동경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폐쇄된 공간 즉, 수도(京都)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平安朝 귀족들의 생활 모습은,



特に閑散で業務が無く，官位の昇進といふことより外には，社會的に何の希望もなく何の事業欲も無い，平安城裡の貴公子どもが，その女のやうな柔い膚の下にめぐる熱い血しほを，脂氛香圍の間に灑ぎ盡さうとしたのは，無理も無いことである.³¹⁾

(특히 한산하고 일이 없어서 벼슬의 승진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바람도 어떠한 사업욕도 없다. 헤이안 성의 귀공자들이 그 여자와 같은 부드러운 피부 속에 감도는 뜨거운 열정을, 연지 기운과 향에 에워싸여 쏟아 부은 것은 무리도 아닌 일이다.)

31) 津田左右吉(1977), 前掲書, p.353.

위 예문처럼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남녀 사이의 연애가 가장 관심거리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3. 庶民生活

平安朝는 궁정을 중심으로 하는 화려한 귀족사회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이 작품 역시 귀족사회에서 나온 것이고 내용 역시 귀족적이지만 그 속에는 서민들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당시 귀족사회는 화려했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작품에서 竹取翁는

野山にまじりて竹を取りつゝ、よろづの事に使ひけり.³²⁾

(들로 산으로 들어가 대나무를 꺾어와서는 여러 종류의 도구를 만드는 것에 사용했다.)



와 같이 야산에 들어가서 대나무를 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柳田國男의 견해를 보면,

「神童を手に入れて長者となる者の職業が竹取でなければならぬ必然性もないとみる。要は竹を伐ったり、柴を刈ったりして、暮らしを立てなければならぬほどのきわめて貧しい者という意味であった。」³³⁾

(神童을 손에 넣어서 長者가 되는 자의 직업이 대나무 채취를 업으로 하는 자라야 할 필연성도 없다고 본다. 예컨대 대나무를 베거나, 뿔감을 하거나

32)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8.

33) 柳田國男(1980), 「定本柳田國男集」, 築摩書房, p.179.

하여 생계를 꾸리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와 같이 당시 고대 경작을 근거로 하는 시대에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대나무를 모아 와서 곡류와 바꾸어야 하는 것이 직업이라기 보다는 가난한 노인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 가난한 서민인 竹取翁가 부자가 된 것은 “前世の因縁”라든가 “翁が功德を積んだ”로 말해지고 있지만, 대나무 속에서 황금을 발견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귀족사회의 사치스런 생활 즉 부를 얻는 것이고 권력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4. 成人式

三月ばかりになる程によき程なる人に成ぬれば、髪上げなどさうして、髪上げさせ、裳着す。³⁴⁾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성인식을 올려도 좋을 만큼 성인이 되니, 머리올리기에 좋은 날을 접쳐, 머리를 묶어 올리고, 옷을 입혔다.)

이 부분은 “かぐや姫”가 성장해서 成人式을 하는 것을 묘사한 부분으로 전승문예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그 당시 시대 풍습인 成人式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귀족의 여성이 성인이 된 표시로 처음으로 “裳”³⁵⁾를 입는 의식은 물론 “髪上げ”의 의식도 동시에 한다. 그리고 연령은 일정하지 않지만

34)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0.

35) 「裳」는 元來 婦人用の 「はかま」(일본 옷의 곁에 입는 주름잡힌 下衣)이지만, 이 작품의 성립시기인 平安時代에서는 婦人の 正裝으로 「はかま」 위에 걸치고, 허리에서 늘어뜨린 裝飾用の 衣服을 가리키고, 「裳」를 처음으로 걸치는 儀式을 「裳着」라고 말한다.

대략 12살 내지 13살 무렵 결혼하기 전에 행하여졌다.

한편, 남자의 成人式은 「竹取物語」와 동시대 작품인 「伊勢物語」의 처음 부분에서 볼 수 있다.

「昔, 男, うひかうぶりして、…」³⁶⁾

(옛날 어떤 남자가, 元服을 해서, …)

위와 같이 귀족의 남자가 成人式을 할 때에는 상투를 묶고 冠을 쓰는 의식으로 12살 경부터 16살 경까지 행하여졌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平安시대의 귀족들에게 행하여진 成人式이라는 풍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5. 婚姻觀



「竹取物語」의 전체적인 테마는 주인공인 「かぐや姫」를 중심으로 하는 五人의 귀공자들과 天皇의 연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혼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竹取物語」는 집요하게 婚姻制度를 끄집어내어 그 속에 “かぐや姫”를 동여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이 “物語”가 의도하는 바이다. 記紀·萬葉 등의 고전에서 엿볼 수 있는 당시의 혼인형태는 “妻問い婚”인데, 그 “妻問い婚”이란

「婚姻が成立しても、ただちに妻が夫の家に引き移るのではなく、妻は實家な

36) 秋山虔(1985), 「伊勢物語」, 昇龍堂出版, p.27.

り妻方で定められた住居,あるいは娘宿のような寢宿に起居していて,夫がそこを訪れることにより夫婦生活が行なわれるという,一時的訪婚の形をとるのである。」³⁷⁾

(혼인이 성립해도, 곧바로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친정과 처가에서 정해진 주거, 혹은 娘宿과 같은 숙소에 기거하여, 남편이 그곳을 방문하는 것에 의해 부부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시적 訪婚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남자와 여자는 결혼해도 부부가 별거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집을 방문하는 혼인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혼인은 「竹取物語」의 작품 성립시기인 平安시대 초기무렵까지 지속되었다. 그것을 작품에서 보면,

「夜るは安きいも寝ず、闇の夜に出て、穴をくじり、かいまみ、まどひあへり。さる時よりなむ、よばひとはいひける。」³⁸⁾

(밤에는 자지도 않고 어두운 밤에 나와서는 울타리에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거나 하며 매우 조급해 했다. 이와 같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구혼하는 것을 「よばい(夜這い)라고 한 것이다.)

에서 “かいまみ”해서 “よばい”(“妻問い”를 하는 것)를 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고대인의 구혼방식인 “よばい”의 의미를 살펴보자.

37) 大島建彦外 5人編(1982),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p.17.

38)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2.

「求婚を表示する慣習であり、また、その後の婚姻生活を意味していた。つまり、男は求婚しようとする相手に名のりを求め、女は心を許す者の場合にのみ自分の名をうちあげた。こうしてお互いに名のりあうことで戀愛が成立し、これによって男が女の家に通うことが許され、婚姻が成立したと考えられている。この慣習は、人の名を生命と同じものとして考える古い觀念の基づくものであった。」³⁹⁾

(구혼을 표시하는 관습이며, 또한, 그 후의 혼인생활을 의미하고 있다. 즉, 남자는 구혼하고자 하는 상대에게 이름을 밝히기를 요구하고, 여자는 마음이 허락하는 자에게만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이렇게 하여 서로간에 이름을 밝히고 나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 다니는 것이 허용되고,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관습은 사람의 이름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옛 관념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여기에서와 같이 구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힌 후 상대의 이름을 묻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잔재를 「竹取物語」에서도

「この女、『かくのたまふは誰ぞ』と問ふ、「わが名はうかんるり」と言ひて、ふと山の中に入りぬ。」⁴⁰⁾

(이 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묻는다. 「내 이름은 우칸루리(うかんるり)」라고 하며, 홀연히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와 같이 상대(타인)의 이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이름을 대는 것에서 볼 수 있다.

39) 大島建彦外 5人(1982), 前掲書, p.59.

40)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44.

이와 같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말하면 결혼이 성립된다는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중매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부친이 개입하지 않는 자유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妻問い婚”에 대신해서 飛鳥奈良時代 무렵부터 “婿取婚”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婿取婚”은 다시 “前=婿取婚”⁴¹⁾와 “純=婿取婚”⁴²⁾로 나눌 수 있는데 “前=婿取婚”에서는 사위(婿)를 선택할 때는 모친이 개입하지만, 다음 단계인 “純=婿取婚”에서는 딸의 의사도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서 사실상 부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최종적으로 부친이 사위를 택한다고 생각된다⁴³⁾는 “純=婿取婚”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작품에서 “かぐや姫”의 결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누구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かぐや姫”의 양부모 중에서 부친인 “竹取翁”은 “かぐや姫”를 자식으로서 미래에 대해 대단히 걱정하는데 그 미래란 여성으로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變化の人といふとも、女の身持ち給へり。翁のあらむ限りは、かうてもいまずかりなむかし。この人々の年月をへて、かうのみいましつゝのたまふことを、思ひ定めて、一人一人にあひたてまつり給ね」と言へば、...⁴⁴⁾

(「아무리, 당신이 변화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자의 몸이십니다. 늙은이인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독신으로 계실 수 있겠지요. 이 사람들의 긴 세월동안, 이처럼 열심히 다니시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어느 한분과 결

41) 大化前(593)–平安中期(898). 形式은 妻(妻의 父母)의 집에 받은 「妻問い」 받은 滞在.

42) 平安中期(898)–白河院政(1087). 形式은 妻(妻의 父母)의 집에 완전한 滞在.

43) 篠田浩一郎(1981), 前掲書, pp.87–88.

44)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p.18~20.

혼하십시오。」라고 늙은이가 말하니...)

에서와 같이 “翁”은 “かぐや姫”가 變化에 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인지하면서도 “翁”가 살아 있는 한은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여자의 몸이기에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결혼의식 속에는 그 시대의 부권적 혼인습속이 나타나 있다. 그것을 “かぐや姫”의 혼인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この世の人は、をところは女にあふことをす、女は男にあふ事をす.⁴⁵⁾

(이 세상의 사람은 남자는 여자와 맺어지고, 여자는 남자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かぐや姫」가 아니고 언제나 양부인 「竹取翁」가 관여하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變化の人といふとも、女の身持ち給へり。翁のあらむ限りは、かうてもいますかりなむかし.⁴⁶⁾

(「아무리, 당신이 변화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자의 몸이십니다. 늙은이인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계실 수 있겠지요.)

위 에문과 같이 “翁のあらむ限りは”라는 표현처럼 “翁” 자신을 강조하는데 반해 “かぐや姫”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かぐや姫”의 혼인문제에 있어서도 “かぐや姫”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고 부친인 “翁”를 중심으로 혼인이 성사

45)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8.

46) 上掲書, p.18.

되고 있는 것이다. “火鼠の皮衣” 段에서

かく呼びすゑて、この度はかならずあはむと、姫の心にも思ひをり.⁴⁷⁾

(이렇게 집안으로 청해 불러 앉히고, 이번이야말로 반드시 혼인을 시켜야지 하고 노파까지도 그렇게 다짐했다.)

의 “姫の心にも”에서 “にも”가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혼인에 대한 실재 발언자는 “翁”로 “かぐや姫”는 그저 “翁”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車持皇子は優曇華の花持ちて上り給へり」と、のゝしりけり。これをかぐや姫聞きて、「我は皇子に負けぬべし」と、胸うちつぶれて思ひけり.⁴⁸⁾

(「車持皇子께서 매우 진귀한 優曇華의 꽃을 가지고 돌아오셨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범석을 떨어뜨렸다. 이것을 かぐや姫가 듣고, 「나는皇子에게 질 것 같다。」라고 하며 불안하게 생각했다.)

여기에서도 “かぐや姫”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음을 위 예문에서 묘사하면서 “かぐや姫”는 “胸うちつぶれて”라는 표현처럼 괴로워한다. 나아가서는 “親のたまふことをひたぶるに辭びまうさむこと”라고 하면서 부모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 것까지 후회하는 것에서도 부친인 “翁”가 혼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권적 혼인도 사실은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원칙

47)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62.

48) 上掲書, p.34.

을 근본으로 해서 부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ある時は竹取を呼び出て「娘を吾にたべ」と、ふし拜み、手をすりのたまへど
「おのがなさぬ子なれば、心にも従はずなんある」と言ひて、月日すぐす.⁴⁹⁾
(어떤 때는 竹取翁을 불러내서,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엎드려 절
하고, 손을 비비며 말씀하셨지만, 竹取翁은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니므로,
제 생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세월을 보낸다.)

“かぐや姫“에게는 月世界에 양친이 있으며 ”翁“와는 親子의 관계가 없더라
는 말속에는 “かぐや姫”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다.

그 다음에 “壻取婚”(데릴사위婚)의 체재에 관한 내용도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 그것은 “蓬萊の玉の枝”의 段에서 구혼자의 한 사람인 車持皇子와의 결
혼이 성립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한 “竹取翁”가

翁はねやのうち、しつらひなどす.⁵⁰⁾
(竹取翁은 침소 안의 준비 등을 한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 段의 “火鼠の皮衣”에서 阿部御主人이 부여받은 難題
물을 구해 와서 결혼이 성립될 것같이 되었을 때

御身の化粧いといたくして、「やがて泊りなんものぞ」とおぼして,⁵¹⁾

49)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p.14~16.

50) 上掲書, p.40.

(자신의 화장에 정성을 들이시고, 「이대로 かぐや姫의 집에 머물러 버릴
까」 라고 생각하시며)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阿倍の大臣、火ねずみの皮衣もていまして、かぐや姫にすみ給ふとな。こゝ
にやいます」⁵²⁾

(「阿倍の大臣님은 불쥐의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かぐや姫와 결혼하셨다
던데, 여기에 살고 계시는지요.」)

라고 묻는 부분에서 보면 “婿取婚”의 풍습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같이 “妻問い婚”에서 “婿取婚”의 변동은 앞장에서 언급한 平安시대의 토지공유제의 붕괴가 원인이라고 본다. 그것은 토지공유제가 붕괴되면서 남자들은 자기가 속한 씨족의 속박에서 자유스럽게 되어 자기 개인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은 성년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딸만 집에 남게 되어 사위를 맞이해서 外孫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부친이 사위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친과 딸과의 관계는 현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작품의 애정 관계에서도 모친(嫗)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婿取婚”에서 부친이 사위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상대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³⁾ 그것은 이 작품에서도 天皇을 제외하고 皇子부터 右大臣, 大納言, 中納言라는 배열이 사위 선택 풍습에 따

51)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60.

52) 上掲書, p.66.

53) 篠田浩一郎(1981), 前掲書, p.91.

라서 신분, 지위, 재산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즉, “婿取婚”은 남자가 처가의 집에 살기 때문에 남자는 처가에서 나오므로
써 결혼을 끝내고 또 다른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첩
의 구별이 없는 다처제가 행해지기도 하였다.⁵⁴⁾ 는 시대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재력이 있는 남자는 집을 만들어서 여자를
데려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풍속을 “すゑ”(그 집의 주인 자리에 앉히는 것)라
고 한다. 이러한 “すゑ”의 모습은 「竹取物語」의 “龍の首の珠”의 段에서 大
伴御行가 “かぐや姫”와 결혼하기 위한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かぐや姫すゑんには、例のやうには見にくし」との給て、うるはしき屋を造
り給て、漆を塗り、まきゑして、かべし給て、屋の上に絲を染めて色々に葺
かせて、内のしつらひには、言ふべくもあらぬ綾おり物に繪をかきて、間毎に
張りたり。もとの妻どもは、かぐや姫をかならずあはん設して、ひとり明かし
暮し給。⁵⁵⁾

(「かぐや姫를 아내로 맞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집으로는 창피하다。」고 말
씀하시고, 훌륭한 집을 짓고, 그리고 옷칠을 하고 족자로 벽을 장식하고 갖
가지 색으로 물들인 실로 지붕을 잇고, 각 방의 장식에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능직물에 그림을 그리고, 기둥사이마다 붙여놓았다. 원래
의 아내들은 大納言이 만드시 かぐや姫와 만드시 결혼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각각 홀로 지냈다.)

즉, 大伴御行가 위 예문처럼 훌륭한 집을 신축해서 “すゑ”하고자 하고 있
다. 그리고 여기서 大伴御行가 많은 본처들을 “すゑ”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그

54) 関斗基(1977), 「日本の歴史」, 知識産業社, p.54.

55)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p.72~74.

당시가 다처제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서 “かぐや姫”를 맞이하기 위해 本妻들을 내쫓아버리는 것에서 “すゑ”는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혼인이기 때문에 정식의 婿取婚과 틀려서 모든 점에서 자유스럽고 자의적이며 편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그 당시 최고의 귀족인 皇族으로부터 中納言까지 5인의 귀공자들이 “かぐや姫”에게 구혼하지만 모두 실패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天皇도 구혼하지만 거부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차이점은 5인의 귀공자들에게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難題物이 부여되지만 天皇에 대해서 구혼의 조건이 없다.

요컨대, 天皇은 내시를 시켜서 “かぐや姫”를 부른 것은 天皇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또 사실상의 부친인 “翁”도

「この女の童は、絶えて宮仕へつかう奉るべくもあらず得るを、もてわづらひ侍り。さりとも、罷りて仰せ事給はむ」⁵⁶⁾

(이 어린 여식은 궁정생활을 할 마음이 조금도 없기에 소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분부하신 것을 말씀드리지요.)

에서와 같이 “かぐや姫”를 天皇에게 현상하여 天皇을 섬기게 하는데 이는 그 당시의 혼인 형식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天皇의 말에는

帝, 仰せ給ふ、「造麻呂が家は、山もと近かなり。御狩行幸し給はんやうにて見てんや」とのたまはず⁵⁷⁾

56)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08.

(천황께서 말씀하시기를 「造麻呂의 집은 산기슭에 가깝다고 들었다. 매사냥을 위하여 행차한 것처럼 해서 姫를 보자」 고 하셨다.

에서 “なり”라는 傳聞의 조동사가 많은 것도 전제군주의 결혼의 실태를 반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天皇이 마침내 수렵을 구실 삼아 가마를 타고 산기슭에 있는 집까지 놀러 가는 부분을 보면,

帝にはかに日を定めて、み狩に出で給うて、かぐや姫の家に入り給うて見給ふに、光みちて清らにてゐたる人あり.

「これならむ」と思して近くよらせ給ふに、逃げて入る袖をとらへ給へば、おもてをふたぎてさぶらへど、初めてご覽ずればたくひなくめでたくおぼえさせ給ひて、「許さじとす」とて、みておはしまさむとするに、かぐや姫答へて奏す,

「おのが身は、この國に生まれて侍らばこそ使ひ給はめ、いと率ておはしましがたくや侍らん」と奏す。帝、「などか、さあらん。猶率ておはしません」とて、御輿を寄せ給ふに、このかぐや姫、きと影になりぬ(下略)』⁵⁷⁾

(천황께서는 급히 기일을 정하여 매사냥에 나서고는 かぐや姫의 집을 방문하시어 보시니 집안에 광채가 넘쳐흐르고 있었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이 앉아 있다.

「소문에 들던 かぐや姫가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며, 가깝게 다가서시니, 안으로 달아나 버린다. 천황이 그 소매를 붙잡으니 다른 한쪽 소매로 얼굴을 가렸으나 소매로 가리기 전에 보실 수 있었다. 이 세상에 견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하시고는 「결코 놓아주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데려가려고 하시므로, かぐや姫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다.

57)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14.

58) 上掲書, pp.114~116.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몸이라면, 천황의 말씀을 따르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천황께서는 「어째서 그럴 리가 있겠는가. 어떻게 든 데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차를 가까이 대자, 이 かぐや姫는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되어 버렸다.)

天皇이 도망치는 “かぐや姫”의 소매를 붙잡거나 자기 몸을 숨겨서 天皇에게 찾아내게 하는 위 예문은 “かぐや姫”가 5인의 귀공자와는 다르게 천황을 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日本古典文系」 권 67의 注에 구혼 받은 여성이 몸을 숨겨서 남성이 찾아낸다는 혼인습속이 나타나 있고, 그 외에도 「古事記」 雄略記・「出雲風土記」 出雲部・「播磨風土記」 賀古郡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나타난 혼인 풍속은 오랜 시대의 풍속을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6. 對唐貿易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火鼠の皮衣”의 段에서는

その年きたりける唐土船の、王けいといふ人のもとに、文を書きて、⁵⁹⁾
(그 해에 들어온 唐나라 무역선의 王啓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かの唐土船來けり。小野のふさもりまうで來て、⁶⁰⁾
(그 당나라의 무역선이 도착했다. 小野房守가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59)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54.

60) 上掲書, p.56.

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이 시대는 대당무역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火鼠の皮衣、 からうじて、 人をいだして求め奉る。…(中略)… もし、 金賜はぬ物ならば、 かの衣の質、 返したべ」⁶¹⁾

(「火鼠의 가죽옷을 겨우 사람을 시켜서 구했습니다. …(중략)… 만일, 그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가죽옷을 돌려주십시오」)

의 부분에서는 옛날부터 중국상인은 거래를 하기 전에 우선 고객의 인물을 연구해서 그 내부 사정에 정통했다고 추측한다. 그것은 여기서 중국상인은 “阿部のみむらじ”의 인품과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간파하고 자기가 대신해서 우선 “火鼠の皮衣”의 값을 지불해서 “阿部のみむらじ”에게 은혜를 입히고 나서 다시금 5십냥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상인들의 상술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阿部のみむらじ”는 중국 상인이 “火鼠の皮衣”를 구해 보내 준 기쁨에

嬉しくしておこせたるかな⁶²⁾

(다행스럽게도 잘 도착했구나)

라고 말하고,

唐土の方に向かひて、 伏し拜み給ふ.⁶³⁾

61)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58.

62) 上掲書, p.58.

(당나라 쪽을 향해 업드려 절한다.)

라는 부분에서 그 당시 중국송배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竹取物語」 성립 당시의 사회를 묘사한 것으로 「竹取物語」에 사실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볼 수 있는 일면이다.



63)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58.

Ⅲ. 천황상

「古事記」, 「日本書紀」 등의 史書에서는 天皇을 가공의 인물로 꾸민 것으로 보아 많이 왜곡되어 있으나 이 天皇의 家系라는 것은 神話時代부터 계속하여 일본을 통치하였고, 그 통치권은 神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天皇은 至尊으로서 天皇의 先祖는 神이라는 것이고 神의 계보를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이와 같은 思考를 「竹取物語」 성립이전의 「万葉集」에서 보면,

「現つ神 わご大君の 天の下 八島の中に……」(1050)
(現人神이신 우리 임금의 다스리는 하늘아래 여덟 섬 중에……)

라는 것에서 “現つ神”은 現世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神. 神은 보통 형태를 보이지 않지만 天皇은 항상 神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神系の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神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人間인 天皇이 곧 神이라는 現人神思想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天武持統朝이다. 壬申亂이라는 대규모의 내란을 싸워서 이겨낸 天武天皇은 군사조직을 장악하고, 그리고 중국의 唐王朝의 법제를 모방하여 천하의 부와 천하의 권세를 모두 天皇에게 집중시키고 귀족계급이 天皇의 절대적 지위에 순응함으로써 성립한 정치이념인 律令體制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전제적 왕권을 수립해서 개인소유의 토지 및 백성은 모두 국가의 公地·公民으로 만들고 중앙집권제

를 확립시켜 天皇의 권위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現人神思想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竹取物語」가 탄생한 平安시대 嵯峨天皇에 들어오면서 토지공유제가 붕괴되면서 토지 사유가 성행하여 嵯峨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층의 세계에 거부감이 생기고 힘이 커졌다. 따라서 天皇과 귀족층의 거리가 현저하게 좁혀지고 풍부하고 우아한 인간적 친근감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天皇은 神的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고 인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竹取物語」 성립 이전 天平文化時代의 율령체제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天皇은 現人神으로서 至高의 존재이고 神의 계보에 따르는 것이고 그 부친과 사적인 관계(孝)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율령체제의 정치이념 역시 중국의 유교적인 효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것을 인용하고 받아들였을 때는 그 후 서서히 天皇은 神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 「竹取物語」 성립시기인 平安시대에는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시대상이 「竹取物語」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작품에서 찾아보면 「求婚難題譚」의 皇子, 右大臣, 大納言, 中納言이라는 최고의 귀족들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 있는데 반해서 天皇은 다른 존재로 나타나 있지만 天上界의 힘 앞에서는,

「からうじて思ひ起して、弓矢を取りたてんとすれども、手に力もなくなりて、
 痿えかがりたり、中に心さかしき者、念じて射んとすれども、外さまへい
 きければ、あれも戦はで、心地ただしれにしれて、まもり合へり。」⁶⁴⁾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활과 화살을 손에 쥐려 하지만, 손에 힘도 없어져서

64)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40.

축 늘어지듯이 옆에 기대어 있다. 그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자는 애쓰며 화살을 쏘지만 화살은 다른 곳으로 빗나가 버리고,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정신이 혼미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현실세계에서 권력·권위에 있어서 제일인자라는 것이다.

그것은 내시인 방자가 天皇으로부터 “かぐや姫”의 용모를 보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かぐや姫”를 만났는데, “かぐや姫”가 만나지 않겠다는 말에 内侍가 말한

「國王の仰せ事を、まさに世に住み給はむ人の、承り給はでありなむや、いはれぬ事なし給ひそ。」⁶⁵⁾

(국왕의 명령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않되는 말씀은 거두어주십시오.)

이 발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예외 없이 天皇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사고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세에 사는 인간으로서 天皇은 다른 존재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神의 후예라는 관념이 완전히 소실되어 버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벌써 天皇은 인간으로서 인간세계에서 제일인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天皇은 이 세상의 절대군주이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이상 이 세상의 것은 모두 天皇의 소유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각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응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

65)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06.

와 같은 절대군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天皇의 의향을 전달하는 방자가

「仰ごとに、かぐや姫のかたち優におはす也、よく見てまゐるべき由のたまは
せつるになむ、まゐりつる」⁶⁶⁾

(천황께서 말씀하시기를 かぐや姫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하시고 가
서 잘 보고 확인하고 오라고 분부하시길래 찾아보였습니다.)

라고 방문 목적을 솔직하게 말했을 때, “かぐや姫”는 양모인 노파에게

「よきかたちにもあらず。いかでか見ゆべき」と言へば、「うたてもの給ふか
な。帝の君の御使をば、いかでかおろかにせむ」と言へば、かぐや姫の答ふる
やう、「帝の召してのたまはむこと、かしこしとも思はず」と言ひて、更に見
ゆべくもあらず。産める子のやうにあれど、いと心恥づかしげに、おろそかな
るやうに言ひければ、心のままにもえ責めず。⁶⁷⁾

(「그 다지 좋은 용모도 아닌데. 어떻게 만나뵙겠습니까」라고 말하니, 노파
는 「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천황의 신하를 어떻게 소홀리 대접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かぐや姫가 답하기를 「천황이 저를 불러오
라고 그토록 말씀하신다니 송구스럽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혀 만나려고도
않았다. 자신이 낳은 애와 같이 대했지만, 사뭇 부끄러운 듯이 조심스럽게
말하니 노파는 자기 뜻대로 억지로 시킬 수가 없었다.)

와 같이 말한 부분을 보면, “かぐや姫”는 “よきかたちもあらず”라고 겸양
하면서도 “帝の召してのたまはむこと、かしこしとも思はず”⁶⁸⁾와 같이 天皇의

66)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04.

67) 上掲書, p.104.

68) 上掲書, p.104.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것에 대해서 “かぐや姫”의 반발은

「國王の仰事を背かば、はや殺し給ひてよかし」 69)

(국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신다면, 빨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天皇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태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天皇과 “かぐや姫”의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대등·평등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天皇이 인간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至高의 神에 유래한다는 天皇의 계보적 관념도 이미 우월적으로 의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69)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06.

IV. 자연상

1. 대나무(竹)

“かぐや姫”가 탄생하는데 왜 대나무(竹)가 모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慶應대학 산부인과의 鈴木悦 박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태아를 잉태할 수 있는 공동인 자궁이 있듯이 대나무에도 마디와 마디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 인간의 자궁에 해당한다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모체가 되었다⁷⁰⁾고 論하고 있다.

또, 그는 “三月ばかりになる程によきほどなる人になりぬ……”⁷¹⁾라는 “かぐや姫”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대나무(竹)도 어린대(竹)가 지상에 나타나서 2~3개월만에 모체만큼 성장해 머리는 점과 관련하여 “かぐや姫”가 3개월 정도에 성인의 키만큼 자라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과 대(竹)도 2~3개월 동안에 모체만큼 자라서 이후 몇 년이 지나도 크지 않는다는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다.⁷²⁾

따라서 “かぐや姫”의 탄생 역시 대나무(竹)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대나무(竹)의 특성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대나무(竹)속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것은 일본 이외⁷³⁾의 나라에도 있

70) 上田弘一郎(1983), 「竹と日本人」, NHK, p.89.

71)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0.

72) 上田弘一郎(1983), 前掲書, pp.89~90.

73) 竹中誕生이 日本以外 나라에 있다는 說을 보면

契中-中國의 佛典 「廣大宝樓閣經」

田中大秀-中國의 經典외에 「後漢書」, 「華陽國志」 이것 외에도 中國大陸에 적지 않다고

는 이야기로 그것이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설⁷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 및 동양의 고대국가에서 대나무(竹) 속에서 인간이 탄생했다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본 대나무(竹)의 특성을 당시 고대인은 알았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런 작품의 생성 이전부터 농경생활을 하는 고대인에게는 대나무(竹)가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나무(竹)의 특성을 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대인은 곡물의 생산과 처리에 체, 바구니, 소쿠리 등의 용구를 사용했고, 또 농경의례를 위해 피리 등 악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대나무(竹)의 사용은 인간생활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대나무(竹)가 가진 성장력, 내구력, 긴 수명, 그리고 인간의 모체의 자궁과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대나무(竹)의 신비스러움으로 인하여 대나무(竹)에 대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신령이 머무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

이것도 옛날부터 대나무(竹)를 신성시하여 崇禮具로써 사용되어지던 것이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런 대나무(竹)의 사용이 일본 이외의 동양의 고대 국가에서나 오늘날에는 인간생활과 멀어져갔지만 유독 일본만이 예능이나 민속행사에 대나무(竹)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진이 빈번한 나라였다. 과거의 대지진때 대나무숲 속으로 도망친 사람은 모두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地震のときは竹やぶへ逃げよ”라고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는 속담이 남아 있는 것에서도 이 대나무(竹)가 일본인의 생명을 구해주는 수단 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식물보다 더욱 애착이 간 것으로 본다.

봄.(中國의 四川省에서 나온 「斑竹姑娘」)
三品彰英-韓國의 新羅殊異傳
伊藤清河, 「かぐやの誕生」, p.17, 22, 29.
74) かぐや姫의 대중(竹中)誕生이 日本이 아니고 中國이라 보는 說(伊藤清河, かぐやの誕生)

2. 달(月)

이 장에서는 「竹取物語」에 나타나 있는 달의 思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달의 神性은 범인류적인 문화요소로 종래부터 여러 가지 연구가 거듭되어 오고 있다. 대충 예를 들면 ①死와 再生, ②海潮 및 배(舟), ③農耕 및 曆法, ④性(男性, 女性) 등이 있다.⁷⁵⁾ 그 중 달의 性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달은 보통 여성과 연결되어 나타나 있다. 일본에서는 平安 이전에는 이러한 달과 여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상이나 관념은 보이지 않는다. 즉, 平安 이전의 작품에서 보면, 「古事記」에서는 日神(太陽)은 天照大神(あまてらすおおみかみ)라 부르며 女神으로 되어 있고, 月神은 「萬葉集」에서



天にます月讀壯士賄はせむ今夜の長さ五百夜繼ぎこそ(卷6·985)

(하늘에 계시는 달님이시여,幣帛을 받자 오리다, 오늘밤 길이를 五百밤이나 이어주소서)

夕星も通ふ天道をいつまでか仰ぎて待たむ月人壯士(卷10·2010)

(셋별도 다니는 하늘길을 우러러, 언제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일까, 달의 장사여)

天の海に月の舟浮け桂楫懸けて漕ぐ見ゆ月人壯士(卷10·2223)

(하늘위의 바다에 달배를 띄우고서, 계수나무 노를 걸어 젓는 것이 보이네,

75) 相良亨篇(1986), 「講座 日本思想」 第4卷, 東京大學出版部, p.11.

달의 장사가.)

위 예문처럼 “月讀壯子”·“月人壯子”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男神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平安時代の 「竹取物語」에서 처음으로 달(月)이 여성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것은 “かぐや姫”가 달을 바라보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

「三年ばかりありて、春のはじめより、かぐや姫、月のおもしろく出でたるを見て、常よりも物思ひたるさまなり。ある人の月の顔見るのは、忌む事と制しなけれども、ともすれば、人間にも月を見ては、いみじく泣き給ふ。七月十五日の月に出でて、切に物思へる氣色なり。」⁷⁶⁾

(3년쯤 지나서, 이른 봄에, かぐや姫는 달이 매우 아름답게 떠있는 것을 보고, 여느 때보다도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かぐや姫의 옆에 있는 사람이 「달을 쳐다보는 것은 불길한 일입니다。」라고 만류했지만, 하지만 사람이 없는 사이에 달을 쳐다보고는 심하게 울어버리셨다. 7월 15일의 달밤에 かぐや姫는 가장자리에 나와 앉아서는 끊임없이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와 같이 달이 여성의 深層心理次元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처럼 달이 여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 平安시대 사람들은 비로소 달의 盈虧現象週期(逆望月)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달의 盈虧現象週期가 여성의 생리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平安시대 이전의 「萬葉集」에서도

熟田津に船乗りせむと月待てば潮もかなひぬ今は漕ぎ出でな(卷1·8)

76)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22.

(熟田津에서 배타려고 달뜨기를 기다리니, 바닷물도 알맞도다, 이젠 배저어서 떠나자구나)

이 노래에서 “月待てば”는 滿月을 기다린다는 설도 있지만 단순히 달뜨기를 기다린다는 설이 많다.⁷⁷⁾ 따라서 平安시대 이전에는 달의 주기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고 본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달이 남성과 연결된 平安이전시대는 달의 盈虧現象週期를 모르기 때문에 식물채집단계사회로, 다시 말해서 자연을 그대로 두고 인간 쪽이 자연에 동화 공감하여 자연의 구체적인 景物의 변화, 예를 들면, 들에 고사리가 돌아나는 것을 보고 봄이 온 것을 느끼고, 널려 있는 새하얀 빨래가 마르고 있는 것에서 여름이 온 것을 느끼고, 새의 울음소리에서 가을이 온 것을 느꼈지만, 달이 여성과 연결된 平安시대는 달의 盈虧現象週期를 알면서 식물을 재배하는 농경사회라고 본다. 따라서 이 시대는 曆에 의해서 아직 눈이 계속 내려 봄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는데도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달과 여성의 관련을 고대 일본인의 토속신앙의 잔재로 보는 尾崎暢殃에 의하면

「月の顔を見のるは昔から忌みきらうことです。古代人は月をおそれたので、それがみちたりかけたりするのを奇怪に感じ畏怖したのである。この印象は平安時代にも残り、物語や歌集にもその痕迹をとどめている。」⁷⁸⁾

(달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옛부터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대인은 달을 두려워

77) 岡本雅彦(1993), 「上代歌謠と萬葉集」, 飛鳥書房, p.139.

78) 尾崎暢殃(1984), 「竹取口物語全釋」, 中道館, p.172.

했기 때문에, 달이 차거나 기울거나 하는 것을 기괴히 느껴 무서워했던 것이다. 이 인상은 平安시대에도 남아서, 物語나 歌集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죽음이나 피의 더러움을 금하는 고대 일본인의 관념 속에서 달은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 침묵 속에 숨기어져 보이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와 같은 토속적 신앙이 점점 사라져 가는 平安朝 귀족사회 속에서 그 본원적 근거를 잃어버리면서 습속으로서 금기가 잔존해서 그와 같은 경고가 언어로서 나타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통독해서 이 작품에 달을 어두운 부정의 이미지로서 읽어 취하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에서 달은 토속신앙의 어두운 불안을 비추는 금기의 달이 아니라 淸淨玲瓏世界의 상징으로서의 달이다. 만약 달에 대한 부정의 관념이 고대 일본인에게 보편적이었다면 「竹取物語」 이전의 「萬葉集」 등에서도 볼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가령 「萬葉集」에서

「ぬばたまの夜霧の立ちておほほしく照れる月夜の見れば悲しき」(982)
(어두운 밤안개가 끼어서 어렴풋이 빛나는 달을, 바라보니 슬픈지고)

와 같이 슬프거나

「春日山おして照らせるこの月は妹が庭にも淸けかりけり」(卷7·1074)
(春日山 널리 골고루 비치고 있는 이 달은, 내님 뜰에도 맑고 깨끗이 비치겠구나)

와 같이 밝은 표현은 있어도 달을 보는 것은 금한다는 표현은 없다.

즉, “月の顔見る忌む事”라는 금제의 표현은 平安時代 「竹取物語」 이후부터 「源氏物語」, 「古今集」, 「後撰集」 등에서 누차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古今集」에서

「おほかたは月をもめでじこれぞこのつもれば人の老と爲るもの」(雜879)

(여간해서는 달을 감상하지 않겠다. 달을 감상하는 것이 거듭되면 사람이 늙은이가 되는 것이다)

와 같이 달을 보는 것을 금한다고 나타나 있다.

이것으로 비추어 보아, 이러한 표현은 唐風文化謳歌時代인 平安시대의 화려한 귀족사회에서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月の顔見るのは忌む事」 79)

(「달을 쳐다보는 것은 불길한 일입니다.」)

라는 표현은 고대 농촌의 토속신앙과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작자가 화려한 귀족사회의 일원이라는 점과

「文學上の新産物も、この性質はやはり貴族的である。」 80)

79)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22.

80) 津田左右吉(1977), 前掲書, p.326.

(「문학상의 새로운 産物도 이 성질은 역시 귀족적이다.」)

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고대 농촌의 토속신앙과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달을 보는 것을 금하는 것이 토속신앙으로서 강한 금기라면 작품 속에서도 엄격한 금기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은 단지 말뿐이고

「人まにも月を見ては、いみじく泣き給ふ。」⁸¹⁾

(사람이 없는 사이에 달을 쳐다보고는 심하게 울어버리셨다)

와 같이 “かぐや姫”는 혼자서 달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달의 이미지(Image)를 보더라도 「竹取物語」의 이전 「萬葉集」 7권의 雜歌 「詠月」에 18수(1069~1089)의 달에 대한 노래가 실려 있는데 그것에서 보면,

「海原の道遠みかも月讀の光少き夜はくたちつつ」(1075)

(벚길을 멀리와서 때가 지난 탓일까, 달빛도 모자란 밤은 깊어가도다)

「水底の玉さへさやに見つべくも照る月夜かも夜の更けゆけば」(1082)

(물밑의 아름다운 구슬이 맑게 보일 만큼 빛나는 달이여, 밤의 어둠이 짙어졌기에)

와 같이 어느 것이나 계절도 날(日)도 중추명월의 관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중추명월을 관상하는 것은 和歌의 세계인 「萬葉集」과 「古今集」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竹取物語」에서는 중추명월의 관념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81)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22.

「八月十五日ばかりの月に出で居て……」 82)

(8월 15일 가까운 저녁의 달밤에 가장자리에 나와 앉아……)

와 같이 “かぐや姫”가 중추명월을 觀玩한다는 요소와 그리고 “月世界”와 현실세계와의 접촉에서 보면,

「この月の十五日に、かのもとの國より、迎へに人々まうで來むず」 83)

(8월 15일에 본래의 달나라에서 마중을 하러 사람들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에서도 중추명월의 의식이 나타나 있다. 이런 점에서 「竹取物語」의 달은 실로 당시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이국적 동경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달에 대한 사고는 중국적 발상에 의한 이국적 표현이고 그 영향하에 확실히 이 무렵은 귀족들이 중추의 명월을 관상하는 觀月宴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본다.

平安시대 사람들은 일년 중에 달이 가장 밝은 날이 8월 15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家のあたり、晝の明かさにも過ぎて、光りわたり、望月の明かさを十合せたるばかりにて、ある人の毛の穴さへ見ゆるほどなり」 84)

(집 주위가 대낮처럼 밝아지며 빛나며, 보름달의 10개나 합친 정도로 밝았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의 毛孔조차 보일 정도였다.)

82)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26.

83) 上掲書, p.126.

84) 上掲書, p.140.

와 같이 “月世界”의 사람이 지상에 내려오는데 8월 15일이 가장 밝은 날이라는 思考가 들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三俗榮一가 당시 널리 애독된 중국 시집인 「白氏文集」의 영향이라고 보듯이 외래문화인 중국의 新思潮가 도래되어 단지 平安시대 귀족들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작품에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萬葉集」에서는 달에 대한 일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반해서 「竹取物語」에서는 달에 대한 일수의식이

「七月の十五日の月に出で居て…」 85)

(7월 15일 보름달 저녁에 かぐや姫는 가장자리에 나와 앉고…)

「八月十五日ばかりの月に出で…」 86)

(8월 15일 가까운 저녁 달밤에 나와 앉고는…)



와 같이 나타나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平安시대 사람들은 달(月)의 태음력을 알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동시대의 작품 「伊勢物語」에서 살펴보면,

「時はやよいのつたち」(二段)

(때는 3월 초순)

「五月のつごもり」(九段)

(5월 그믐)

85)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22.

86) 上掲書, p.126.

「十二月のつごもり」(四十一段)

(12월 그믐)

「六月の望ばかり」(九十六段)

(6월 보름)

와 같이 각각의 달이 “ついたち”, “望”, “つごもり”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달(月)이 둥글게 되는 것은 十四, 十五, 十六의 밤이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달이 출현하는 월초를 “朔”이라 하고, 달이 가득 차서 결국 숨는 시간을 “つごもり”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당시는 현실의 인간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요소인 一日一日, 一刻一刻이 경과해 가는 曆의 지식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曆이 일본에 언제 어떠한 경로로 보편화되어 갔는지는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기록상으로 볼 때 도입된 시기는 백제 聖王23年(554)에 曆博士를 일본에 보냈고, 그 후 武王3年(602)에 역서와 천문서를 가지고 일본에 갔다⁸⁷⁾고 한 점으로 보아 이즈음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실제생활에 채택되었는지는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竹取物語」 성립시기인 平安시대 초기에는 唐風文化謳時代로 인해 한시문이 급격하게 융성하고 있었다. 즉, 중국 고래의 지식을 모방하여 읊조리는 한시문 작가들이나, 당시 수나 당에 유학한 사람들 중 역법을 배운 자의 영향으로 농경을 떠나 있는 상층의 都人士, 궁정의 관료들 사이에 태음력이 통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태음력에 따라서 일상의 時務를 다하면서 춘하추동의 계절을 느끼고 있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竹取物語」 성립시기인 平安시대에 비

87) 「韓國史 3, 民族의 統一」(1981), p.381.

로소 四季, 月, 日의 의식이 曆의 지식과 연결되어 고정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실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不老, 不死에 대한 강한 바람이 「竹取物語」에서는

かの都の人は、いとけうらに、老いをせすなむ⁸⁸⁾

(저 달의 도시의 사람은 대단히 아름답고, 나이를 먹지도 않습니다.)

天人の中にもたせる箱あり, 天の羽衣入れり, 又あるあは不死の藥入れり.⁸⁹⁾

(하늘나라의 사람들 중에 가져온 상자가 있다. 하늘의 깃털 옷이 들어 있다.

또한, 또 하나의 상자에는 불사의 약이 들어 있다.)

와 같이 月世界에 대한 동경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天人이나 月世界 혹은 不死의 藥 등의 그 근저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神仙思想을 제재로 하여 자기들의 것같이 고쳐 포착한 것이다. 그것은 津田左右吉의

「長生不死の仙人といふものがあって、或は輕舉飛行し天に昇り、或は蓬萊にその居るところがあるろせられ、それを得るに靈藥があり、またはそれに達す道がある。」⁹⁰⁾

(불로장생의 신선(仙人)이 있어서, 어떤 때에는 가볍게 하늘로 올라가고 어떤 때에는 봉래에 있어 그것을 얻기에 榮樂이 있고 또한 그것에 이르는 길이 있다.)

88) 雨海博洋譯註(1994), 前掲書, p.138.

89) 上掲書, p.146.

90) 津田左右吉, 前掲書, p.173.

에서 중국의 神仙思想은 불로불사의 장생, 초인적인 능력, 승천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로·불사의 月世界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月の顔見るは忌む事」⁹¹⁾

(「달을 쳐다보는 것은 불길한 일입니다.」)

와 같이 달을 보는 것을 금한다고 나타나 있고, 또 작품의 종결부분에서 天황이 말한

逢ふこともなみだに浮かぶ私が身には死なぬ薬もなにかはせむ。⁹²⁾

(かぐや姫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까닭에 슬픈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 不死의 약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라는 말속에 不死보다는 현실의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不死の薬の壺ならべて、火をつけて燃やすべきよし仰せ給ふ。⁹³⁾

(천황의 편지와 不死의 약을 항아리에 넣고, 불을 붙여 태워버리라고 분부 하신다.)

91) 雨海博洋譯注(1994), 前掲書, p.122.

92) 上掲書, p.154.

93) 上掲書, p.154.

와 같이 不死의 약을 태워버리는 것으로 이 작품은 끝나고 있듯이 현실에서는 不死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竹取物語」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老·死를 면할 수 없는 현실을 긍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V.결 론

“物語”는 협의의 현실을 초월하여 그것과 다른 세계를 묘사하는 픽션으로써 창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협의의 현실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허구 속에서 도출시켜 내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비현실성도 당연히 나타난다. 그러나 “物語”의 현실성도 “物語”장르 성립에 필수적의 요건이다.

그런 점에서 「竹取物語」에도 “難題求婚說話”段의 難題物の 실현 불가능성과 현실 세계를 초월한 이상한 힘 또는 不死의 약 등의 여러 가지 비현실성도 나타나지만 이 작품의 성립 시기인 平安시대의 시대상을 꽤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후자에 중점을 두고 「竹取物語」 작품을 통해서 平安시대의 어떠한 시대상을 알 수 있는가를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사회상으로는 天皇을 정점으로 하는 귀족사회에서 그 귀족들을 매우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비판하고 위선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과 귀족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자의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통제력이 약한 사회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통제력이 약한 사회이기 때문에 지방에는 도적이 날뛰어서 귀족들은 지방에 나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 지형적으로도 平安朝 이전의 수도보다 좁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귀족들은 아주 폐쇄된 사회에서 생활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먼 이국의 국토문물을 동경하는 것과 같은 관념 속에서 생활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かぐや姫가 성장해서 성인식을 올릴 때의 묘사 부분에서는 그 시대

의 成人式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혼인관에서는 5인의 귀공자중 본래의 처를 제쳐두고 かぐや姫와의 결혼을 위해서 애쓰는 귀공자들에 대한 묘사에서 결혼은 正妻라든가 格式의 차이는 있더라도 사실상은 일부다처이고 데릴사위혼이었으며, 부권적 혼인습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천황상으로는 神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인간세상에서 제1인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天皇은 이 세상의 절대군주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天皇의 소유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竹取物語」에서 天皇과 かぐや姫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天皇의 인간적인 요소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관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 권력·권위에 있어서 제일인자라는 것이다.

셋째, 자연상에서 대나무를 모티브로 한 かぐや姫의 탄생과 かぐや姫의 성장과정은 대나무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작품 생성 이전부터 농경생활을 하는 고대인들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모티브로 하였다고 본다.

또한, 작품 속에서 달에 대한 日數 의식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달의 太陰曆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즉, 「竹取物語」 성립시기인 平安 시대는 사계, 월일에 대한 曆의 지식과 연결되어 고정화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논고에서 「竹取物語」는 かぐや姫의 탄생, 5인의 귀공자들의 구애, 天皇의 구혼, かぐや姫의 승천 등의 묘사 속에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한국문헌

【單行本】

金載元·李雨壽(1959), 「韓國史」(古代編), 乙酉文化史
閔斗基(1977), 「日本の 歴史」, 知識産業社, p.54.

【論文】

김대식(1988), 「竹取物語研究」, 한남대학교
김병두(1985), 「竹取物語의 考察」, 계명대학교 대학원
김미정(1992), 「竹取物語의 一考察」, 경북대학교

2. 동양문헌

【텍스트】

雨海博洋譯注(1994), 「竹取物語」, 旺文社

【單行本】

三谷榮一(1979), 「竹取物語」, 明治書院
高橋宣勝(1996), 「語られざるかぐや姫」, 大修館書店
高尾政夫(1989), 「竹取物語·伊勢物語新解」, 新塔社
田中元(1982), 「竹取·伊勢物語の世界」, 吉川弘文館
篠田浩一郎(1981), 「竹取と浮雲」, 集英社
伊藤清司(1984), 「かぐや姫の誕生」, 講談社 現代新書
山中裕 외 1인(1994), 「平安時代の儀禮と歳事」:平安時代の文學と生活, 至文堂
工藤重矩(1994), 「平安朝の結婚制度と文學」, 風間書房
野口元大(1984), 「竹取物語」新潮日本古典集成26, 新潮社

片桐洋一(1976), 「竹取・伊勢・大和物語」 日本古典文學全集8, 小學館
津田左右吉(1977), 「文學に現はれたる國民思想」 第1卷, 岩波書店
柳田國男(1980), 「定本柳田國男集」, 築摩書房
秋山虔(1985), 「伊勢物語」 昇龍堂出版
大島建彦外 5人(1982),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上田弘一郎(1983), 「竹と日本人」, NHK
相良亨篇(1986), 「講座日本思想」 東京大學出版部
岡本雅彦(1993), 「上代歌謠と萬葉集」, 飛鳥書房
尾岐暢殃(1984), 「竹取物語全釋」, 中道館

【論文】

芳賀繁子(1990), “かぐや姫の昇天と不死の藥”, 「日本文學」, 5. Vol.39
奥津春雄(1990), “「竹取物語」 求婚譚の構造と主題”, 「日本文學」, 5. Vol.39



<Abstract>

The Phases of the Times Described in 『Taketerimonogatari』

Choi, Jin-Ho

Japanes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Republic of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aketerimonogatari』 is the oldest monogatari in Japan ; as 『Gengimonogatari』 says, it is the first monogatari. 『Taketerimonogatari』, which is written in current Japanese now, was called "okinamonogatari of taketori" or "monogatari of kaguyahime" long ago.

"Monogatari" is created as a fiction to tell reality and improbability. In other words, "monogatari" expresses the real life as it is, and also shows the incredible and impossible happenings in the fabrication. Therefore, we can see the improbability of it. However, reality is also a precondition of "monogatari". In this point, it is worthy of attention i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that 「Taketorimonogatari」 considerably gives a graphic description of the phases of the Hearn age, though it represents impossibility, surrealistic and mysterious power, and a variety of queer things such as an herb of eternal youth, and so on.

This paper gives some grounds that 「Taketorimonogatari」 describes realistically the phases of the times through expressing the birth and growth of kaguyahime, courting of five young nobles, an Emperor's proposal, ascension of kaguyahime, and so on.

